

찬연한 역사로 함께 해온 어머니산 ‘화폭에’

국윤미술관서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뮤지엄 이음’ 선정 콘텐츠…무등산 탐색

전시 내일부터…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시와 관광·지역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뮤지엄 이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 ‘뮤지엄 이음’이 광주 국윤미술관이 선정됨에 따라 순회전과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뮤지엄 이음’은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으로, 우수 전시의 지역 순회 개최와 관광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윤미술관은 순회전인 ‘무등향유’(無等享有) 전과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인 ‘작가와의 만남’ 및 ‘무등 線 Shine’ 등을 연이어 갖는다.

순회 전시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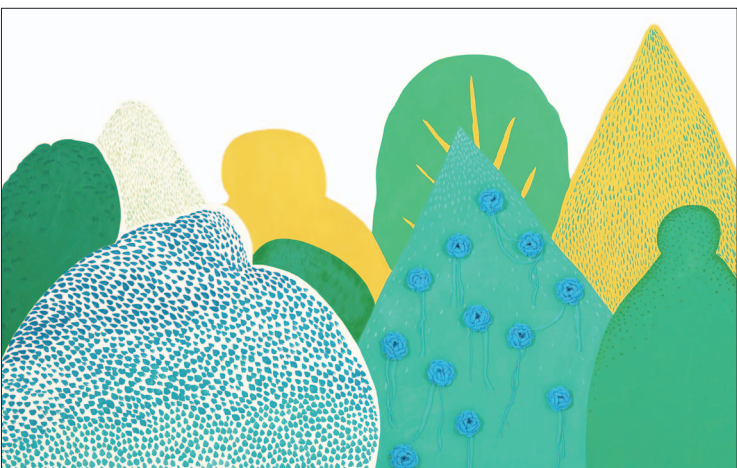
무등산이 지닌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예술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순회전은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제21호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되며 그 생태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광주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일 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 인문의 서사를 품은 곳으로 지역민의 삶과 함께 해온 무등산의 자연환경적 가치를 탐색한다.

무등산의 고유한 가치에 공감하며,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 9명이 동참했다.

전통 회화부터 미디어 장르까지 아우르는 이번 전시는 무등산이 품은 의미와 가치를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으로 담아낸다.

먼저 기후 변화와 멸종위기 속에서 모든 자연물이 서로의 가치를 존중,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고 교감하는 이상향을 그려내고, 생명체의 소중함과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며 일상 속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한다. 평화로운 이상향과 모든 존재가 공존하는 순수한 세계를 꿈꾸며, 동화 같은 소재로 따뜻한 상상력을 풀어내는 시각적 즐거움을 전해온 김해성 작가는 아크릴 작업에 이어 최근



김선희 작 '생명의 흐름 2'

에는 흑백의 모노크롬 연출을 시도, 절제된 무채색과 색채 포인트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어 류재웅 작가는 유화 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린 두터운 질감으로 입체감을 살려내며 자연의 숭고미를 작품에 담아내고, 박상화 작가는 반투명 메시 스크린을 활용한 비디오 연출로 자연 풍경을 재해석하며, 작품 속 풍경과 하나가 돼 동화되는 공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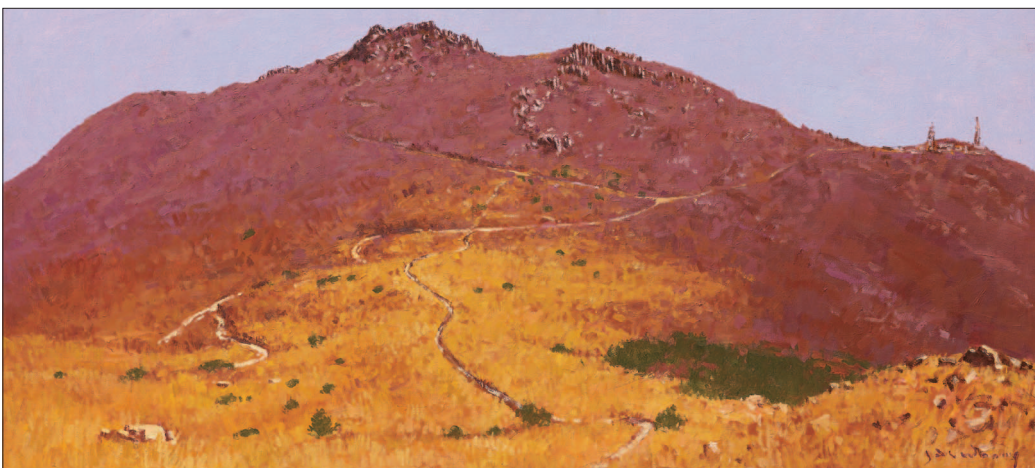
또 손지원 작가는 풍경과 함께 담아내면서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존재의 자취를 통해 진정한 여운을 전한다. 신철호 작가는 오랜 세월을 품어온 무등산의 역사성과 그 안에서 이어져 온 시간의 흐름을 반복

적인 덧칠 과정으로 표현하며, 익숙한 오브제와 자연을 간결한 형태로 재해석해 시각적 여운을 안겨준다.

이이남 작가는 남종화의 거장 의재 허백련의 작품을 오마주하거나 선대 작가들의 내면 정신인 가운생동을 디지털 미디어로 재해석해 현대적 공감대를 확장하고, 이호국 작가는 선의 속도와 굽기, 선을 긋고 겹치는 반복된 행위를 통해 화면에 역동성을 불어넣으며 초록 계열의 농담으로 무등산이 지닌 깊은 생명력과 감성을 전한다.

이외에 조근호 작가는 작업실에서 바라본 무등산의 기운을 담아낸 ‘몽치산수’ 연작을 통해 몽롱한 덩어리감과 무게감으로 무등산의 친숙하고 넉넉한 인상을 표현한다.

이와 함께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광주·



류재웅 작 '중봉에서'

익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 전시 이해를 높이고, 작가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여기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서 지역을 상징하는 무등산을 주제로 새로운 재료 및 기법을 융합한 ‘DIY 네온사인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제시해 신선한 문화예술 공감을 유도한다.

김은희 학예실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무등산을 예술로 친근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무등산의 가치가 전국민의 마음에 깊이 전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가 인터뷰를 담은 전시 영상을 함께 선보이며 국윤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전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윤미

술관 다음 카페 및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윤미술관 순회전이 끝나면 전북 익산으로 자리를 옮겨 9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W미술관에서 다시 순회전이 열린다.

한편 ‘뮤지엄 이음’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88개 박물관·미술관의 지역 순회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기관들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순회전을 개최하며, 이 가운데 50개 관은 전시 장소를 거점으로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전시 관람을 지역 체류형 문화 경험으로 확장해 지역 문화와 관광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가·장르 초월…가을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 열린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3개 무대서
선우정아·이무진·강산에·하림 등 출연…13일까지 조기 예매

올 가을, 세계 각지의 리듬과 감성이 교차하는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이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 이하 전당재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에서 ‘2026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을 선보인다.

지난해 월드뮤지컬페스티벌을 새롭게 단장해 출발한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은 올해 개최 시기를 기존 8월에서 10월로 옮겼다. 관객들은 무더운 여름에서 벗어나 깊어 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올해 페스티벌은 ‘전통과 현대, 장르와 국경을 넘는 음악적 실험’을 주제로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협업과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계의 협력과 공연예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개막 공연은 일렉트로팝 뮤지션 키라

라(KIRARA)와 영상감독 정은영이 함께 만드는 협업 무대로 꾸려진다. 전자음악과 영상 예술을 결합해 일상 공간과 공동체의 경험을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올해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이 지향하는 새로운 음악적 감각과 확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공연진으로는 싱어송라이터 이무진, 선우정아, 10CM, 강산에를 비롯해 창작 국악 그룹 삼자루 등이 참여해 대중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국립극장 ‘2026 여우락 페스티벌’과의 협력해 여우락 대표 작품인 ‘삼산×서의철가단’, ‘하림×구이임’을 무대에 올린다. 국내 대표 음악 축제 간 협업을 통해 우수 공연 콘텐츠의 지역 확산과 공연예술 기관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의미를 더한다.

해외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미국 그래미상 수상에 빛나는 타악 앙상블 소 퍼커션(So Per-



선우정아



이무진



하림

cussion), 호주와 한국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디스럽션!&서니 김(Disruption!×Sunny Kim)이 무대에 오르며, 일본의 DJ ‘코토노 시라이’(DJ Kotono Shirai)와 한국의 페기굿(Peggy GouD)은 전통 농악과 현대 전자음악을 결합한 협업 무대를 통해 동아시아적 리듬과 현대적 사운드스가 만나는 실험적 퍼포먼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지카글로리피카와 정마리 그리고 박은하’, ‘추다혜차지스와 몸의 플레이댄스컴퍼니’ 등 장르를 넘나드는 협업 공연도 이어진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색채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사할 전망이다.

공연은 예술극장 극장1 빅더어 야외

무대, 극장2, 하늘마당 등 3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시민 참여형 강좌, 음악 휴게 공간, 먹거리 구역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함께 운영해 공연과 휴식, 체험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진행된다. 아울러 시민 자원활동가 ‘엑스 밴디(X-Bandi)’도 지난해에 이어 운영한다. 엑스 밴디는 공연장 안내와 관람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는다.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 관람권은 1월권 5만원, 3월권 12만원이다. 개막식 관람 혜택이 포함된 조기 예매 4일 협업 공연도 이어진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배경과 음악적 색채가 어우러지는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선사할 전망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픽셀 연상 붓 터치…기억·감정 관계 ‘탐구’

최인경 작가 ‘기록되지 않은 기록’…27일까지 드영미술관

광주특별시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은 청년작가 선정공모전을 지난 7월 24일 개막, 오는 27일까지 드영미술관 1전시실에서 ‘기록되지 않은 기록’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지역 미술문화의 활성화와 역량 있는 청년작가의 발굴을 위해 마련된 청년작가 공모선정전은 드영미술관이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인경 작가를 올해의 작가로 뽑았으며, 작가가 이어온 회화 작업과 최근 작품을 소개하게 된 것이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거나 잊힌 듯 남아 있는 감정과 기억에 주목해 온 최인경 작가는 오래 머무는 생각과 감각을 화면으로 옮기며, 경험이 기억 속에서 변형되고 다시 떠오르는 과정을 회화로 풀어낸다.

타이틀인 ‘기록되지 않은 기록’은 문서나 사진처럼 명확한 형태로 남겨지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내면에 축적된 시간과 감정을 가리킨다. 작가는 감정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사소하게 여겨졌던 순간이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이루는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의 회화는 픽셀을 연상시키는 붓 터치가 두드러진다. 작가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을 회화의 조형 요소로 끌어들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재하는 동시대의 시각 환경을 담아내는 등 사진



‘햇님 방법론’

화면을 떠올리게 하는 구도와 여행지에서 마주한 역사적 장소, 풍경 이미지도 화면 안에서 겹쳐진다.

최근 작업에서는 작가의 관심이 개인의 내면으로 확장된다. 2025년 작품 ‘신이 된 듯’과 ‘햇님 방법론’에는 웅덩이 속 작은 물고기와 위태롭게 균형을 이루는 돌이 등장한다. 작가는 이러한 형상을 통해 불안과 무력감, 욕망과 체념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내면의 상태를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최 작가의 작업이 디지털 시대, 외부 풍경에서 개인의 기억과 감정으로 이어져 온 흐름을 살펴보는 자리다. 최근 작품에 등장하는 상징적 형상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을 비춘다. 서로 다른 시기의 작품을 통해 작가의 작업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3-6515.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일대에서 ‘2026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을 선보인다. 지난해 ‘ACC 엑스뮤지컬페스티벌’ 모습.

“작은 규모지만 사랑의 마음 나누고 싶다”

광주가톨릭인권평화재단, 풀뿌리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광주가톨릭인권평화재단(이사장 옥현진 대주교)은 이 세상에 인권과 평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치·사회·제도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2027 풀뿌리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지역사회에서 민주·인권·정의·평화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지, 응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신청분야는 인권과 평화, 지속 가능한 환경, 지역자치 등이며, 지원규모

는 사업별 500만원 이내다.

임숙영 사무국장(수녀·광주가톨릭인권평화재단)은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지만 미처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사업규모 절자의 까다로움으로 지원 요청을 망설인 경우가 있다면 광주가톨릭인권평화재단의 손을 잡아 달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이며 결과는 11월 27일 발표된다. 문의 062-234-2737.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